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져야 한다

군불교 '체질개선' 필요하다

일상적 직무유기, 한마디로 현재 그리고 과거의 군포교를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필자가 1999년 전방에 초입 군법사로서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처음부터 각 연대의 지휘관들은 노골적으로 목사가 부임해주시기를 바랐고, 법사가 부임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위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법사를 참모로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1년의 기간동안 필자는 이러한 법사에 대한 야전 지휘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어려운 여건에서 법담불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쯤, 우려했던 것은 현실화 되기 시작했다.

개신교 신자인 지휘관은 군종참모인 목사와 협의해, 후입 군종장교를 목사로 할 것을 협의하고 있었다. 이에 군승단 회의시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다른 부대도 유사한 상황 일 것임으로 전 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상급부대 법사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다른 상위 계급의 법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지휘관과 당시 군종참모인 목사를 설득해 무사히 후입 법사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있었다. 이때 오히려 합리적 성향의 목사가 필자의 주장을 상당부분 이해해 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 포교의 작은 향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

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처럼, 법사 개인의 자질과 무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법사가 군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사단법사는 3년 이상의 군복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단에 부임하는 군종장교의 인사가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하급 부대의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다. 이는 자신이 그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 즉 자신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이다.



군법사는 장교로서의 활동을 당해 지휘관에게 평가받지만 승려로서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그 공과를 평가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상위 계급 법사와의 개인적 친분 등이 노력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이는 부패와 무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법사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 군포교의 질적 향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군불교는 목사들의 전문성과 조여졌던 상담분야의 전문가와 조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정적 추진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법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유능한 인적 자원이 군법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조치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군법사는 장교로서의 활동을 당해 지휘관에게 평가받지만 승려로서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그 공과를 평가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상위 계급 법사와의 개인적 친분 등이 노력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이는 부패와 무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법사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 군포교의 질적 향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군불교는 목사들의 전문성과 조여졌던 상담분야의 전문가와 조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정적 추진력과 판단력을 겸비한 법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유능한 인적 자원이 군법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조치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이정훈(서울시 관악구 불현동)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후반기 전망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후반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는 향후 조계종 전반적인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법등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여대 종단 분규 발생지를 보면 중앙종회였다. 종단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종회가 안정돼야 한다"며

의 종단 운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등 스님은 또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 통해 즉흥적인 안건 상정 보다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상정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의 건, 종립법 개정의 건이 차기 종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군승교구특별교구법 제정 등이 올 12월 열리는 임시종회에서 다시 논의되며, 승려법 등도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일승회, 금강회, 보림회, 화엄회 4개 중

“종회 화합해야 종단도 안정”

종단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을 밝혔다.

분과위 활동 강화로 종회기능 제고 책무의무 책임의식 '발전'의 새 코드

이는 별첨자 사면문제,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 교체 문제, 부산 선암사 문제 등으로 곤혹을 치렀던 총무원 집행부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 할 수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여대종단 종회 모임 일승회와 화엄회의 지지를 받은 법등 스님이 금강회와 보림회의 지지를 받은 법조 스님을 14표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했기 때문에, 총무원 집행부

내년 예산에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각종 입법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별첨 조항과 중앙종회의원 면책특권 삭제, 종헌 개정 시 공과부표 등을 빼대로 하는 종헌종법 개정의 건을 비롯해, 중앙종회법 개정의 건, 총무원

책무의무 위주의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점은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계파식 모임들이 스스로 표방하는 이름 그대로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해 책임정치를 펼쳐지 않는다면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계파인 일승회의 행보에 따라 후반기 종회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주요 종무직 스님들이 11월 10일 열린 신계사 대웅전 부처님 이운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신계사북원추진위 집행위원장 학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법주사 주지 도공, 총무부장 무관 스님. 사진=박재만 기자

“통일 염원으로 부처님 봉안” 금강산 신계사 모실 부처님 '이운'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 모셔질 '통일부처님' 이운식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총무부장 무관, 사회부장 지원, 신계사 불사도감 김정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통일부처님'은 높이 88cm 폭 68cm의 금동석가모니불이며, 좌대의 크기는 높이 36cm 폭 96cm이다. 이 부처님은 1996년 조성돼 총

무원 구상사 1층 불교회관에 모셔졌던 것으로, 11월 20일 금강산 신계사지에서 열리는 대웅전 낙성식 행사 때 법당에 모셔진다. 2005년 새로 부처님이 조성되면 남한으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신계사북원추진위원회는 11월 11일 통일부처님과 함께 대웅전 현판, 부처님 좌대 밑에 문을 지친 구 등을 복한 신계사로 보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내년예산 296억여원

165회 정기종회 통과, 우수사찰 추천도

조계종 제165회 정기중앙종회가 11월 9일 속개돼 내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뒤 10일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일반회계 168억 7479만8천원, 특별회계 127억 4174만1천원 등 총 296억1653만 9천원의 내년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로 운달 스님을 선출했으며,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후보로 암도 스님과 전원 스님 추천에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종정감사 결과 월

정사, 용주사, 동학사, 송광사, 남정사, 고운사, 보리암, 문수사, 도선사를 우수 사찰로 추천했다.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규탄 결의문, 해중행위자대종단 소송 제기자 징계계 촉구 결의문,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군승특별교구법 제정 등은 올 12월 중 임시종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 교계생각 '따로'

종관위·실승 입장 달리하는 성명 발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불교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와 조계종 중앙종회는 9일과 10일 현재 정부여당이 입법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앙종회와 종관위는 성명에서 "사학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사학의 건전 발전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교 종립학교가 건학이념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련 사학재단과 연대해 개정안 반대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선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성관) 등 재야 45개 단체들은 9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즉발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 교비 유용 및 횡령 등 공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공익·개방이사제도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조용수 기자

증개축을 허용하는 대상에 전통사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제250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사찰 내에서의 수행시설과 부대시설 건축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국 의원의 권진현 보좌관은 "그동안 법률의 규제로 전통사찰 문화재보존이 쉽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대표 유정철, 이하 국시민)은 11월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소한의 시설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의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불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요령과 규격 및 인쇄를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조계종 스님 1만2683명

10월 29일 기준으로 조계종 전국 본·말사(선학원, 대각회 포함) 소속 스님은 총 1만268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사미는 1900명, 사미니는 1404명, 비구는 4710명, 비구니는 4669명이다. 또 조계종

이 아닌 종단에서 조계종으로 귀의한 '귀종승'은 총 116명이었다. 한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조계종 전국 본·말사(사설사암 포함) 미제납 분담금은 총 28억4285만원으로 조사됐다.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증개축허용”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자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병국(한나라당 가평·양평)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명은 사찰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신축 및

본지 499호 부록 포교사 고시 실천 모의고사 표지에서 대광불교대학 학장 '상진'을 '윤성'으로 고칩니다.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구분	심야전력(즉열식)	전기판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방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지수(%)	194	386	210	36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올이온 시험 성적서: 시료명 올이온(on/cc) 발급번호 kfi-236 방사율 90.3% 방사에너지 3.64 × 10⁴ 발급번호 kfi-403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사율 90.3% 방사에너지 3.64 × 10⁴ 발급번호 kfi-403

검증인정서: 한국원적외선융합기연구원 시험결과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080-017-0100, 지역문의: 043)221-6006

